

“고민 없는 사람 있나요…즐겨요, 행복 별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꿈을 심는 소년’ 대표 서강고 이창한군

시장·카페 등서 연극·공연…청소년들에 희망 전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막힐 때. 작은 글귀 하나가 촛불처럼 다가왔다.

‘모두가 죽고 싶은 순간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넘겼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인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기업 ‘꿈을 심는 소년’ 대표 이창한(18) 군, 대표라고 하기엔 얼굴에 엿된 표정이 역력한 그는 광주 서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창한 군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주관 ‘2013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에 ‘메아리’라는 사업을 제출해 선정됐다. 메아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특히

입시 스트레스에 지쳐 자신밖에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주목했다. 메아리는 ‘대학’이라는 목표에 함몰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리고, 계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한다. 이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여하는 연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고 담화했던 마음의 문을 열어간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꿈을 심는 소년’은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공원이나 시장, 카페 등 열린 공간에서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는 ‘포럼연극’, 다수 앞에서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고 치유해가는 ‘폐차쿠차’ 등을 통

해 소통할 계획이다. 메아리는 이를처럼 많은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이 메아리 될 수 있도록 SNS와 인터넷 동영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같은 청소년이기에 그들과의 소통을 자신하며 의젓한 모습으로 밝게 웃는 이창한 군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했다. 이군은 “과거 게임중독에 빠져 첫 단추를 잘못 끌었다”며 “성적이 떨어지고 결과에 실망해 다시 게임을 찾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군은 학교폭력을 당해 입원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시간이 지나 몸은 나아졌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군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떠났다”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병이 깊어가던 이군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지만 버스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귀를 보고 새롭게 희망의 불씨를 얻게 됐다.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군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척 신경 쓰며 지냈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당당히 포부를 드러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소년 소통과 진로체험을 돋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이창한 군, 인디밴드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한다며 끌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인디밴드 ‘우물 안 개구리’가 부른 ‘백원만 주세요’를 추천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 하나쯤 있어요. 그게 얼굴에 모두 나타나죠. 백원만 주세요. 즐겁게 돌아봐요.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업체연기자 hot@kwangju.co.kr



서재홍 조선대 총장 학생들에 간식 봉사



서재홍 조선대 총장은 최근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총학생회 간부 및 보직교수와 함께 중간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떡볶이와 어묵 등 간식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조선대 제공)

보성경찰, 다문화가정 초등생 멘토·멘티 결연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최근 윤남순 교육장, 학부형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2명과 경찰관 간 일대일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화케미칼 청소년 축구대회

여수의 한화연합봉사대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랑나눔을 펼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공장장 김연석)과 한화 여수사업장(사업장장 박선규)은 23일 “한화연합봉사대가 지난 20일 여수지역 14개 아동센터 200여명 어린이들을 초청, ‘한화와 함께하는 꿈발의 아이들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봉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둔덕지역 아동센터 14개곳의 학생, 교사 200여명과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아이들에 감성과 배려심을 키워왔다.

지역아동센터 하해순 회장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꿈과 자부심을 심어 준다.

것에 한화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오철곤 사회공헌팀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나눔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연합봉사대는 지난 2001년부터 여수 지역 공부방 학생들에게 매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여름·겨울 방학캠프를 실시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목포시의회 잇단 수상 ‘겸경사’

배종범 의장·성혜리 복지위원장

목포시의회가 잇단 수상소식에 겸경사를 맞았다.

배종범 의장이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중앙당 1급 포상(당대표 포상)을 받은데 이어 성혜리 기획복지위원장이 미국 아이디아 주지사로부터 지방의원 최초로 ‘가치있는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배 의장은 현재 4선의원으로 제9대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91%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민주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 성 위원장은 각계 기업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활동 경력 등 검증을 거쳐 수상자로 선정돼 더욱 값진 수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목포시와 미국 아이디아주가 새로운 교역의 물고를 트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인생 2막 설계 함께 합니다”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일자리 교육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광주지부(지부장 김방령)는 최근 ‘2013년도 제1차 일자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자 30명은 교육기간 동안 내 인생의 하프타임, 일과 삶의 의미, 진단을 통해 나를 알기, 경력목표 설정, 시니어 일자리 분석, 사회공헌 일자리 이해, 스토리가 있는 구직서류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직장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방령 지부장은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업상태인 퇴직공무원들의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가능한 한 이번 수료생 모두가 수료생 개인의 역량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중,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선정

목포향만청, 남광률 청장 취임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가 최근 2013년 교육부 예술교육사업 종합 공모사업에 응모해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로 선정됐다.

올해 교육부 신규사업인 학생뮤지컬은 음악, 무용, 연기, 춤, 국·영어 등 통합적인 예술로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자생적 발전을 위해 교수, 전문예술인, 전문행정팀으로 구성된 ‘학생뮤지컬 사업단’의 공연지도와 현장지원을 받는다.

전남도내 중학교 중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는 담양중을 비롯해 3곳으로, 이를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3년 동안 학생뮤지컬 운영비로 9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학생들이 함께 악기와 노래를 배우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과 이해, 협동심,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어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교장은 “담양중학교는 남학생만 있어 고민이 되긴 하지만, 끼가 많고 열성적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뮤지컬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제25대 청장으로 남광률(56·사진) 청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남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목포항이 서남권 해상운송과 물류중심 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여객 서비스 개선, 안전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깨끗하고 살아있는 해양환경 조성 등 더불어 해양수산부 부활에 맞추어 수산업 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 청장은 지난 1958년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78년 목포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행정법무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해양항만청 전문가다.

원만한 성격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남 청장은 부인 김영란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박광태(전 광주시장)·정말세찌 장남·자형군 강성수·이인숙씨 장녀 미숙연=27일 오후 5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 예배를 드렸다.

▲김홍식·강옥님씨 막내 회성(삼성엔지니어링)군 김종식(완도군수)·구희경(서영대교수)씨 장녀 나영(서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양=27일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 예배를 드렸다.

▲서대진(광주일보)·박정숙씨 장남·명군군 김영대씨 막내 유진연=27일(토) 낮 12시 아베뉴웨딩 13층.

▲이인재(이인재정형외과원장)·이은재씨 아들 정훈(사업)군 문필갑(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본부장)·정경숙씨 2녀 슬기(서울중앙병원)양=28일(일) 낮 12시 30분 광주동암동 성당.

▲양용원(해양도시가스 고문)·유미례씨 장남 허석군 박철우·이승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방법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트라이트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라이트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증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증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활동. (사)장애인먼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플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인을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모집

▲문화 축구단회원=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오전 6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아름다운 가곡클래스 회원=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2013년 1학기 가곡교실(이태리, 독일, 한국가곡), 기초반 오후 7시 ~ 9시(수) / 심화반 오전 10시 ~ 12시(토) 062-520-4243.

▲광주생명의 전화 시민상담대학 = 자녀와 남편 아내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 행복한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 의사소통을 원하고자 하신 분, 상담공부를 하여 멘토와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가능, 인간관계, 대화방법, 청소년 이해, 정신분석, 가족상담, 상담 이론 등, 기간은 5월 28일(화)까지 매

일, 화, 목 오후 7시~9시 지산교회 광주생명의전화교육장(법원앞) 062-232-9192 (다음카페 광주생명의전화)

▲자원봉사 캠프지기=장소는 지산2동·학운동·지원1동주민자치센터, 시간은 주 1회 오후 1시~5시.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전문봉사단 교육 수강생=모집 분야는 수자침·동화구연, 교육일정은 3월부터 주 1회.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경로당 문화활동 전문강사=모집대상은 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활동 장소는 동구 관내 경로당.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등교하고 도우미=모집대상은 동구 관내 초등학교 인근 거주 여성.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